

「2019 WEF[세계경제포럼] 관광경쟁력 지수」 결과

(2021.8.31.)

□ 관광경쟁력지수(TTCI) 개요

- (발표기관)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
 - * 국제 비영리단체. 연차총회인 ‘다보스 포럼’ 및 국가경쟁력(GCI) 순위 발표로 유명
- (평가대상) 140개 국 ○ (발표주기) 2009년 이후 매 2년
- (평가지표) 총 4개분야(Subindex), 14개부문 (Pillar), 90개 세부항목 (Indicator)
- (평가방법) 통계 등 각종 계량지표 및 전문가 설문조사
 - * 통계 : UNWTO, WTTC, UNESCO, IATA, 세계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 공식 보고서 및 데이터 활용
 - * 설문(Executive Opinion Survey) : 국내 CEO 등 기업 고위 관계자 100여명 대상 설문 결과

※ 관광 직접관련 평가 세부항목 (90개 중 18개) * 통계 14개, 설문 4개

- 여행 및 관광우선순위 (6), 문화자원 및 비즈니스 여행 (5), 관광서비스 인프라(2), 자연자원(2), 국제개방성 · 가격경쟁력 · 환경지속성 (3)
- 다수의 평가 세부항목을 WEF 국가경쟁력지수(GCI, '18년 한국 15위)와 공유

□ 2019년도 관광경쟁력지수(TTCI) 결과

- (순위) 한국의 관광경쟁력 ‘19년 16위(4.8점)로 3단계 상승·아태지역 4위

< 역대 한국 순위 변동 내역 >

구분	2008년	2009년	2011년	2013년	2015년	2017년	2019년
순위 (변동)	31위(↑9)	31위(-)	32위(↓1)	25위(↑7)	29위(↓4)	19위(↑10)	16위(↑3)

- (최고순위부문)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(7위) * 2017년 최고항목과 동일
- (최저순위부문) 가격경쟁력 (103위) * 2017년 최저순위 항목은 ‘자연환경’
 - * 공항세(IATA), 호텔가격, 구매력평가지수·유류비(세계은행)데이터를 통해 산출
 - * 환율·유가의 영향을 받으며, 2015년 109위, 2017년 88위 등 한국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부문
- (주요국순위) 1위 스페인, 2위 프랑스, 3위 독일, **일본 4위**
 - * (아태지역) 호주 7위, 중국 13위, **한국 16위**, 홍콩 14위, 싱가포르 17위

붙임1

2019 WEF관광경쟁력지수 국가별 순위 변동사항

□ 2019년도 한국 관광경쟁력 순위 : 종합 16위 ('17년 19위)

○ (10위권 내) 미국과 영국 순위 자리바꿈(5,6위)

○ (11~20위) 한국과 멕시코 순위 최대폭 상승(3순위 ↑)

* 중국·네덜란드(2순위 ↑), 오스트리아,네덜란드(1순위 ↑) 순위 상승

* 싱가포르(4순위 ↓),홍콩(2순위 ↓) 하락

< 140개 국 중 상위 20위 권 내 국가 목록 >

2019년 순위	국가명	점수	2017년 순위	순위 변동폭
1	스페인	5.4	1	-
2	프랑스	5.4	2	-
3	독일	5.4	3	-
4	일본	5.4	4	-
5	미국	5.3	6	↑ 1
6	영국	5.2	5	↓ 1
7	호주	5.1	7	-
8	이탈리아	5.1	8	-
9	캐나다	5.1	9	-
10	스위스	5.0	10	-
11	오스트리아	5.0	12	↑ 1
12	포르투갈	4.9	14	↑ 2
13	중국	4.9	15	↑ 2
14	홍콩	4.8	17	-3
15	네덜란드	4.8	13	↑ 2
16	한국	4.8	19	↑ 3
17	싱가포르	4.8	13	↓ 4
18	뉴질랜드	4.7	20	↓ 2
19	멕시코	4.7	22	↑ 3
20	노르웨이	4.6	18	↓ 2

□ 부문(Pillar)별 주요결과 분석 (2019년)

< 분야/부문별 한국 순위/점수 >

분야 Subindex (4개)	부문 Pillar (14개)	한국				
		'19년(140개국)		'17년(136개국)		'15년
		순위(변동)	점수	순위(변동)	점수	
환경조성 19위(5↑) 5.7점	비즈니스 환경	42(△2)	4.8	44(△25)	4.75	69
	안전 및 보안	30(△7)	5.9	37(△24)	5.82	61
	보건 및 위생	17(△3)	6.4	20(▼4)	6.35	16
	인적자원 및 노동시장	36(△7)	5.0	43(▼3)	4.89	40
	ICT 준비수준	7(△1)	6.3	8(△3)	6.18	11
관광정책 및 기반조성 31위(16↑) 4.7점	T&T 우선순위	53(△10)	4.9	63(△8)	4.64	71
	국제개방성	17(▼3)	4.3	14(△39)	4.28	53
	가격경쟁력	103(▼15)	5.0	88(△21)	4.66	109
	환경 지속가능성	27(△36)	4.7	63(△27)	4.17	90
인프라 16위(11↑) 5.1점	항공운송 인프라	24(△3)	4.6	27(△4)	4.27	31
	육상 및 항만 인프라	15(△2)	5.2	17(△4)	4.98	21
	관광서비스 인프라	23(△27)	5.6	50(△20)	4.6	70
자연 및 문화 자원 24위(2↓) 3.6점	자연 자원	102(△12)	2.4	114(▼7)	2.29	107
	문화자원 및 비즈니스 여행	11(△1)	4.8	12(-)	4.95	12

- (2019 특징) '국제개방성', '가격경쟁력' 제외 전 부문(pillar) 순위 상승
 - 특히, 관광서비스인프라 '17년 50위 → '19년 23위 (27순위 상승)
 - 환경 지속가능성 '17년 63위 → '19년 27위 (36순위 상승)